大學의 自律性

黃 弼 昊
(東國大 哲學科 助敎授)

I. Athene로 돌아온 Platon

대학이 까마귀 싸우는 곳에는 절대로 얼씬도 하지 않는 白鷺와 같이 象牙塔 속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학은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대학은 사회의 여러 가지 기구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사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의 세계는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 이 세계의 모든 인류는 이제 인류공동의 운명을 걱정하고 인류공동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강 건너 불」이란 있을 수 없다. 20세기의 로빈슨 크루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국가)와 대학은 서로 일방적인 독선을 버리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 사회를 무시한 개인의 이익추구는 個人主義가 아니라 利己主義이며, 사회를 무시한 家庭 第一主義가 集團的인 利己主義이듯이 사회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학은 곧 뿌리 없는 나무와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대학을 對立槪念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사회인과 대학인—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회가 대학의 명령에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를 따라가지 않으면 대학이 설 땅이 없다는 것이 요즈음에 유행되는 논리이다. 이러한 지식층과 권력층의 對話 不在가 바로 오늘의 심각한 문제이다.

대학은 사회에 두 발을 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양에서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세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던 플라톤은 억울한 그의 스승의 죽음에 너무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소크라테스의 處刑 직후에 이집트, 소아시아, 시실리, 남부 이탈리아로 나그네의 서글픈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동굴」인 아테네로 돌아왔다. 그에게 보여 주고 떠난 스승의 眞理에 대한 確信을 다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러나 대학은 단순히 현실을 따라가는 侍女가 아니다. 언제나 현실과 관련을 맺으면서(with reference to reality) 존재하면서도 절대로 현실을 따라가는(according to reality) 창녀로 전락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바로 대학의 自律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다.

물론 일정한 상황에서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의 自由를 부여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일한 상황에 있어서도 모든 기구가 동일한 질과 양의

자유를 향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의 다른 기구보다는 자유의 공기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왜 대학은 自由의 空氣를 숨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가?

Ⅱ. 大學의 特性

물리적으로 볼 때 중·고등학교는 국민학교의 연장이며, 대학은 중·고등학교의 연장이다. 그러나 사상사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은 질적인 差異가 있다. 고등학교는—슐라이에르마커의 표현을 빌리면—「배우는 곳」이며 대학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고등학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곳이라면, 대학은 단순히 현재까지 축적된 진리를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하지 않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고 창조하는 곳이다. 대학이 고등학교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에 대한 硏究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학의 첫번째 임무이다.

추구할 수 없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진리는 우리에게 쓰라림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殘忍한 眞實은 없다"는 주장이 옳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대학의 두번째 임무는 새로운 진리를 창조·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傳達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도—비록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진리라도—전달되지 않는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니다. 그리하여 공자는 仁은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窓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교양교육의 선구자인 J. S. 밀은 사상의 자유는 사상의 표현의 자유 없이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思想은 표현되어야 한다. 眞理는 선언되어야 한다.

물론 敎授는 자신의 편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객관적인 안목에서 모든 사상을 비교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백지와 같은 순수한 객관성이란 이상적인 말이며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수는 비록 어느 정도의 자기 편견이 있더라도 信念을 가지고 자신의 진리의 청사진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들과 건전한 理性의 토론 광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理性을 숨쉬고 사는 새이다.

대학의 세번째 임무는 캠퍼스 밖에까지 해당된다. 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캠퍼스 내에서 해결하라는 주장—이런 주장도 벌써 지나가 버린 낭만이 되었지만—은 대학의 社會性을 모르는 주장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은 어디까지나 사회 속의 대학이며 대학은 사회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대학의 이러한 세번째 기능은 어느 정부, 당파, 이데올로기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國民의 輿論과 반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선포하는 진리가 반드시 사회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학이 多數의 暴力인 世論의 專制的 위협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나아가서는 다수만이 지배하는 「民主主義的 誤謬」(democratic fallacy)를 시정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 기여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적극적인 기여가 가능하려면, 지금까지 논의한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인 자유」(freedom from)뿐만 아니라 「비록 틀린 말이라도 소신있게 선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freedom to)가 필요하다.

대학은 고등학교의 연장이 아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 고등학교 4학년으로 취급하는 것은 대학이 가진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르트르가 주장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영원히 포기할 수 없다. 자율의 정신을 버리고 타율에 의지한다고 해서 그 인간이 비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독한 소외의 심연으로 빠질 뿐이다. 마치 공자가 "임금은 임금이어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어야 한다"고 말했듯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이어야 하고 대학은 대학이어야 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대학의 임무를 진리의 硏究, 진리의 敎授, 진리의 宣布의 세 가지로 규정했

다. 그렇다면 학생에 대한 人格的인 지도는 대학의 임무가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요즈음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위 「學生指導」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사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Ⅲ. 國家目標와 大學의 理念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미래상은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전쟁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배격하고 自由民主主義 이데올로기를 고수해야 됨을 말한다.

둘째로 모든 국민의 衣食住를 해결할 수 있는 經濟成長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은 고도의 산업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세째로 민족의 傳統文化를 계승·발전시켜서 후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산업화에 따라서 전래되는 외래의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문화를 한국적으로 수용해야 됨을 말한다.

네째로 물질문명과 더불어 精神文化의 계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것이냐 저것이냐?」(either or)의 서양식 방법론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과 저것」(both and)이라는 전통적인 동양적 세계관을 팽개치고, 외래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적어도 통제적으로 볼 때—지나치게 安保에 치우치면 경제발전이 느려지고, 지나치게 경제성장만을 주장하면 전통문화를 경시하게 되며, 지나치게 전통문화만은 내세우면 편협한 國粹主義者가 되기 쉽다.

그러나 인간은 단세포 동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나 국가의 목표도 그렇게 기계적·산술적·결정론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歷史의 妙味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현상들이 상부상조의 관계에서 존속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다행히 요즈음에는 첫번째 목표와 두번째 목표가 상당히 신축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에서 열거한 국가의 네 가지 목표는 아프리오리(appriori)하게 敵對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에 따라서는 상호 보완하면서 추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목표와 대학의 이념도 반드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목표를 위하여 대학의 이념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학의 이념을 고수하기 위하여 국가의 근본 목표에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서양식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학에서의 인격적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인격적 지도란 곧 훌륭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知·德·體를 겸비한 사람, 교양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德, 智慧, 사람다움이란 어른이 어린이에게 밥을 먹이듯이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대한 대학의 연구, 교수, 선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대학에 협조를 하고 대학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자유의 이름으로 방어함으로써만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혜·덕·사람다움이 강요될 때 그것은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요즈음의 소위 「학생지도」란 이러한 人格的 指導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에 앞서, 이런 문제 자체의 모순점을 발견하여 대학은 본연의 이념을 되찾고 정부는 이러한 대학의 몸부림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 것이다.

Ⅳ. 自由·自律의 意味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자유가 없다면 아

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자유가 없는 돈, 명예, 사랑, 인격이란 허수아비의 아름다움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자유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을 가치있게 만드는 前提條件이 된다. "자유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표현이나, "구속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표현이 모두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려는 역사이며,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도 자유에 근거를 둔 것이다. 「민주주의」 또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구속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앗아가는 제도는 인간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不幸을 自招하는 제도이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가당착하며, 자유가 없는 현대화는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자유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철학자인 피터즈(R.S. Peters)는 자유를 교육과 관련시켜서 다음의 세 가지 계층적인 개념으로 설명했다.

첫째로 자유란 사회적 원칙(a social principle)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구속도 없는 자연적인 자유의 상태(the state of natural freedom)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자유는 어느 정도의 구속—법률이나 관습의 구속—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있게 논의될 수 있다. 아무런 구속(constraint)이 없는 상태는 결대로 구속없는 삶(a unconstrained life)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둘째로 자유를 사회적 원칙으로 본다는 것은 곧 「선택하는 자로서의 인간」(man as a chooser)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인간은 몇 가지의 代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同意를 유보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칸트가 법을 여러 번 어긴 사람이라도 언제나 그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처절러진 犯人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자.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실에서 학생은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그는 구속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는 대안과 담배를 피움으로써 초래하는 모든 대가를 달게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선택적 인간이다. 사르트르가 "인간이란 자유라는 원죄를 타고 태어났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째로 인간이 선택자가 되려면 自律(autonomy)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 닐(A.S. Neill)이 자유를 「스스로의 規制」(self-regulation)와 동일시까지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면 자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 다시 말해서, 자율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 자율이란 語源的으로 볼 때 「스스로 법칙을 받아들이고 만드는 사람」(a person who accepts or makes rules for himself)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단순히 어떤 권위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진실성(authenticity)—소크라테스가 말한 의미에 있어서의 진실성—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칭찬, 비난, 상금, 처벌에 관계하지 않고 자신의 삶 자체에 충실하기 위하여 결정된 스스로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이다. 물론 그의 결정은 칭찬이나 비난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최초의 결정 순간에는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다시 사르트르의 표현을 빌리면—성실성(sincerity)에 근거한 결정인 것이다.

둘째, 자율은 합리적인 평가와 건설적인 비판을 동반한다. 자율적인 인간은 지금까지 자명한 것으로 인정한 것들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주장한다.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나는 의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했고, 파스칼은 "인간은 연약한 갈대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다.

물론 자율적인 인간이 실제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려는 性向(disposit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율적인 사람이다.

세째, 대부분의 경우 자율은 강력한 의지(a strength of will)를 동반한다. 어떤 행위의 규

약을 지키려는 자율적인 인간은 곧 그 규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고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자유를 세 가지 단계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자유의 극치는 곧 자율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자율이란 진실성, 비판정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다시 대학의 자율 문제로 돌아가자.

Ⅵ. 大學의 自律性

대학의 자율성은 먼저 진실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교수는 진실로 학생과의 인간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설불리 현실에 관심이 있는 양, 행세를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안일만을 걱정하는 무기력에서 탈피해야 한다. 학생도 허영심이나 젊음의 패기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진실로 자신의 삶에 성실한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반성(rational reflection)으로 표현된 비판정신이다. 비판이 없는 곳에는 민주주의가 꽃필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꽃은 理性이 숨쉬는 開放社會에서만 자랄 수 있다. 교수는 교수를 비판하는 학생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는 대학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대가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그대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대학의 자율은 강력한 意志를 포함해야 한다.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것(the givenness)이 아니다. 자유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자유의 극치인 자율도 우리 대학인 스스로가 享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란—언뜻 보기에는—무정부 상태와 비슷하다. 아무런 질서와 권위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유의 힘은 바로 그렇게 무질서한 듯이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다. 창조적인 삶에 진실하고, 언제나 비판적인 안목을 잃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획일성의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가의 목표와 대학의 이념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이다. ※